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가 개막한 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야외전시장에 관람객들이 몰려 북적이고 있다.

“오래 기다려도 설레요”... 신작 체험에 구름 인파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2023'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했다.

현장에는 오랜만에 복귀한 게임사 수장들이 자사의 신작을 직접 공개하고 설명, 체험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면서 관람객들의 기대를 높였다.

19일 지스타조직위에 따르면 올해 지스타 2023은 42개 나라에서 1037개 기업이 3328개 부스를 열어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 기록(2019년 3208개 부스)을 경신했다.

이번 지스타에는 엔씨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위메이드, 구글플레이,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 주요 게임업체들이 대거 참가했다.

엔씨 등 주요 게임업체 대거 참가 자사 신작 직접공개에 기대감 높아 게임전시 등 다수 스포츠 행사 진행 하이브 등 B2B 부스로 신기술 소개

또 하이브,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킴즈, 펠어비스 등은 B2B 부스로 참가해 신작과 신기술을 소개했다.

올해 지스타에는 8년만에 복귀한 엔씨소프트와 9년만에 스마일게이트의 수장들이 행사에 직접 참가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창업주는 지스타 개막날인 16일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랜만이다.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준비했다. 새로운 장르의 신작으로 참가했다. 이용자들의 반응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세대들이 나오면서, 게임을 즐기는 고객층도 새로운 세대가 나온다. 서브컬처 등 장르적인 면에서도 소외된 장르가 메인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엔씨(NC)는 지스타 기간동안 ▲슈팅 'LLL' ▲난투형 대전 액션 '배틀크러쉬(BATTLE CRUSH)' ▲수집형 RPG '프로

젝트 BSS' 등 신작 3종의 시연 부스를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내달 7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신작MMORPG TL은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다. 또 MMORTS '프로젝트 G'와 인터랙티브 어드벤처 '프로젝트 M'은 관람객들에게 신규 영상을 공개했다.

엔씨소프트 현장 부스에는 체험을 하고 있거나 대기중인 게이머들의 문전성시를 이뤘다. 엔씨 부스 앞에서 만난 김 모씨(21)는 “슈팅게임 LLL을 체험하러 왔다. 기대된다”고 말했다.

9년만에 지스타에 복귀한 스마일게이트는 신작 MMORPG '로스트아크 모바일'을 공개했다. 로스트아크 모바일은 기존 PC게임인 '로스트아크'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출시한 게임이다.

이날 현장에는 권혁빈 CVO가 비공식 방문해 자사게임뿐 아니라 타사 게임까지 체험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권혁빈 CVO는 현장에서 위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 넷마블의 '일곱 개의 대죄 : 오리진', 크래프톤에서는 '프로젝트 인조이', 엔씨소프트 부스에서는 수집형 RPG '프로젝트 BSS'와 슈팅 게임 'LLL'을 체험했다.

현장에서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권 CVO가 비공식으로 방문했지만 게임 체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은 미리 받았다. 방문 시간이나 날짜는 몰랐다”고 말했다.

게임 체험 후 권영식 CVO는 자사 신작인 로스트아크 모바일을 체험했다.

그는 “모두 열심히 했다. 게임업체를 응원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가장 기대되는 작품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로스트아크 모바일이 기대된다”고 답했다.

지난 2월 스팀을 통해 글로벌 출시한 '로스트아크'의 지난해 매출은 7370억원, 영업이익 3640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50%, 영업이익은 26% 증가한 수치다. 로스트아크를 체험하려고 기다리고 있

는 이 모씨(19)는 “수능 끝나고 바로 지스타 현장을 찾았다. 로스트아크가 기대된다. 빨리 체험해보고 싶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래 기다려야 하지만 설레는 마음 뿐이다”고 말했다.

크래프톤의 '다크앤더커 모바일'과 위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 시연도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다크앤더커 모바일은 게임성 부문에서 호평을 받았던 아이언메이스사의 다크앤더커 IP를 크래프톤이 인수, 자회사 블루홀 스튜디오를 통해 자체 개발 중인 신작이다.

게이머들이 데모 플레이를 해보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현장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전시 부스를 찾은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게임, 다양한 요소를 융합하는 게임 등 다각도로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크리에이티브(창조성)를 발굴, 제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스타 2023 메인 스폰서로 참가한 위메이드는 신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와 '판타스틱4베이스볼'을 출품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했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북유럽 신화를 재해석한 MMO RPG다. 최신 언리얼엔진5 기술을 활용해 최고 수준의 그래픽을 완성했다. 실제 '지스타' 시연 버전을 통해 체험한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고품질 그래픽이 눈길을 끌었다.

판타스틱4 베이스볼 시연 버전도 최초로 선보였다.

현장을 방문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올해 최고 흥행작 중 하나인 '나이트 크로우'가 내년 해외 시장에 본격 출시되면 더 큰 흥행을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그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어울리는 방식대로 가되 그것이 취향에 맞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다른 게임을 선보이는 식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전했다.

위메이드는 신작 시연 부스뿐만 아니라

가수 청하의 공연, 드론쇼, 롯데디자인즈 박세웅, 나균안 선수 사인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선보였다.

넷마블은 신작 3종 '일곱 개의 대죄 : 오리진', '데미스 리본', 'RF 온라인 넥스트'를 게이머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장을 100부스 규모로 마련했다. 특히 이벤트 모드인 풀루언서 대전에 관람객들이 대거 몰렸다.

성승현 캐스터와 권이슬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인플루언서 대전에는 뜨뜨뜨뜨, 변승주, 김성희, 수피, 구루미, 주서리가 참가했으며, 웨이브마다 특수한 효과를 지닌 카드를 선택해 전투를 진행하는 '이벤트 모드'로 대전을 펼쳤다.

인플루언서와 이벤트모드 대전 게임 코스프레 의상 입고 찾아 굿즈위한 스탬프 모으기 인기 넥슨 불참에 아쉬움도 내비쳐

현장에는 캐릭터 의상을 입고 찾은 관람객들이 많았다.

관람객들은 신작 게임을 체험해 보기 위해 1시간가량 대기하거나, 게임 굼즈를 위해 스탬프를 모으려는 노력을 마다치 않았다.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도 대거 지스타 현장을 찾았다. 일각에선 넥슨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능이 끝나서 왔다는 이 모씨는 “올해 지스타는 역대급 큰 부스라고 해서 바로 수능이 끝나자마자 왔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해서 기대한만큼이었다. 하지만 넥슨이 참가하지 않아서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스타에 불참한다고 밝힌 넥슨은 행사 기간 벡스코 오디오리움에서 일렉트로닉 아트(EA)와 함께 축구 게임 '에프시(FC) 온라인' 행사를 별도로 진행했다.

/부산=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가 개막한 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을 찾은 유저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스마일게이트 RPG가 지난 16일 부산에서 개최된 '지스타 2023'에서 블록 버스터 신작 '로스트아크 모바일'의 전시관을 열고 관람객들을 맞았다. /뉴시스